

목사의 길 Review
윌리엄 스틸 著

발제 : 정종남 (벤엘교회)

나는 이 짧지만 힘있는 책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책의 핵심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먹이라.” 당신이 이 일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거나 비전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읽어라! 틀림없이 도전을 받을 것이다.

-태비티 앤압월 (그랜드 케이먼 아일랜드 제 1침례교회 담임목사)

1장 내 양을 먹이라

요 21:17-18 ...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

1. 목사의 정의

저자는 '목사의 직무'에 대한 단순한 정의로 강론을 시작한다.

'목사는 누구입니까?' 목사는 말 그대로 목자입니다. 목사는 목자장을 모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그 양을 길러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섬김의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p. 23)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한 설명도 그 만큼이나 간결하고 선명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양들을 먹이는 것은 물론 그들을 치료하고 돌아보는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p. 41)

목사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이고 온전한 방식으로 수종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돈벌이 수단이나, 태엽으로 움직이는 기차나,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는 사교 장소 정도로 전락시키면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문외한인 교회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p. 49)

훌륭한 목사인가, 혹은 부족한 목사인가를 묻기 전에 진정한 목사인가, 아니면 허울뿐인 목사인가를 물어야 한다. 저자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연설명도 없이 세 번 반복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떼들에게 먹이는 직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 목회의 현장에 대한 분석

그러나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서 오는 도전은 생각보다 거세고, 끈질기며, 또한 직접적이다. 저자는 교회와 설교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 책을 쓰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는 목사의 현실을 분석한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양떼들

무리 안에는 양은 물론 염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회중을 맡게 된 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p.24)

복음서의 특정한 부분만을 계속 설교해 주기를 바라고, 전체 문맥에 따라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오히려 흥분하고 화를 내는 이른바 복음 전도에 열심인 사람들인 사람로부터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옵니다. (p. 39)

회중이 말씀을 받지 않을 때,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목사는 거의 매번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매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모함과 거짓선동으로 맞설 때 목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은 회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역시 간단히 대답한다.

양을 치도록 부름받은 목사는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이 염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p. 25)

양들이 먹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먹이도록 부름 받은 것이 목사입니다. (p. 31)

② 좋은 동역자의 희소성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목사는 또한 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기도 힘이 든다.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유일한 직무'보다는 자신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수를 주었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경륜을 선포한다는 것을 곧 가르침과 설교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근본적인 목회가 희박해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조차 이런 사역의 결과와 열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 28)

3. 어떻게 하면 이 직무를 바르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직무는 한결같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목사는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목사의 직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명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목사의 소망이 된다. 그 분은 없는 빛에게 있으라고 명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① 목사는 스스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세 번 말씀하셨고, 그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다.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히 목사의 자격을 규정한다.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의 직임은 설교 면허증이 아니다. 목사는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는 살아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요약된,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 말씀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즉, 성육신한 말씀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안에서 다시 성육신 해야 합니다. 진정한 목사의 근간은 경건한 성품입니다. (p. 33)

목사를 그 사역에서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목사가 목사가 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목사는 전체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

목사 자신이나 교회의 상황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몇몇 본문들에 국한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권위를 빌어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 전체로 증거해야 한다.

전체 말씀을 전함으로 누가 마음이 상하게 되든 상관없이-그것이 설교자든 자신이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의 친구든 혹은 원수든-두려움이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p. 39)

③ 목사는 기도해야 한다.

나는 너무나 맥없고 따분하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회중의 열의를 누그러뜨리는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 차라리 그런 모습을 거부할 수 있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랄 뻔한 적도 있습니다. (p. 36)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기도 모임은 계속될 뿐 아니라 점점 커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목회를 움직일 일종의 발전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기도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일을 돕고 여러분을 자극하고 채근함을 물론 목회의 힘과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p. 45)

④ 목사는 자신의 생명을 담아 설교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희생을 통해 능력이 나옵니다. 즉,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마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회중에게 전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죽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¹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을 뿐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고 합법적인 많은 부분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고후 3:5)²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치르는 대가를 인간의 격통과 희생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감상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장 강단 밖에서의 목사

요 14:13, 21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 번은 낯선 부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다짜고짜 자기 누이가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니 자기와 함께 집에 가서 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우선 나는 누이의 남편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자기 누이의 남편은 교회를 싫어해서 절대 그가 알지 못하게 '심방'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나중에 누이의 남편과 다시 찾아올 것을 부탁했다. 이 부인은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나를 가리켜 '능력이 없는 목사'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에 대하여 '능력 없는 목사' 혹은 '혹시 이단일지 모르는 목사'로 소개하고 있다.

¹ (고후 4:12, 개정)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² (고후 3:5, KJV) 『Not that we are sufficient of ourselves to think any thing as of ourselves; but our sufficiency is of God』 (ouvc o[ti i`kanoi, evsmen avfV e`autw/n logi,sasqai, ti w`j evx e`autw/n(avllV h` i`kano,thj h`mw/n evk tou/ qeou/\)

1. 목사를 흔드는 잘못된 기대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저자는 우리에게 '능력 없는 목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단 하나의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어중이 떠중이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p. 74)

이런 나의 말에 실망했는지, 자기 친구를 데려온 그리스도인 청년은 나를 한 번 힐끗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그렇게 다소 무뎠던 문까지 배웅해서 돌려보내나 사람들이 돌아온 경우는 이 친구 많이 아니었습니다! (p. 80)

2. 한계를 인정하라!

비록 저자는 겸손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본 장 겸손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설명으로 가득하다. 목사의 겸손은 단순히 성도들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교제하는 기술이 아니다. 또한 전통적인 겸손의 개념을 따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꾸미는 것도 아니다. 못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일 뿐이다. 오직 진실함만이 바른 겸손을 낳는다.

겸손한 목사는 자신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거나 그러한 방식을 개발해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직임이다. 여러 목사가 있지만, 목사의 직무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

① 우리의 능력으로 영혼을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회심시킬 수 없고,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에 먹일 수도 없습니다. ...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그리스도를 팔아 대니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바라는 도움을 주되 영적인 도전도 함께 주십시오! (p. 58)

②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인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라!

여러분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지 않으신 것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술과 약에 취하듯이 이들은 불순하고 죄악된 야망에 빠져 스스로를 망칩니다. 야망이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p. 63)

③ 상식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상식과 다르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p. 67)

목사의 능력을 벗어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자기보다 더 잘 준비된 전문가들에게 이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목사는 보다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는 화해할 수 없는 내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대신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원하고 세상과 교회에서 그분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p. 64)

④ 경청하라!

말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목사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맞받아 할 말을 계산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냥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p. 66)

⑤ 인위적인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라!

어느 정도 친목을 위한 방문이 없을 수 없겠지만, 영적인 사역을 더해 갈수록 목회 사역의 비중이 더 커지고, 단지 친목만을 위한 방문을 점점 줄어든 수 밖에 없습니다. (p. 71)

목사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성도의 집에 잠시 들러서 그저 격의 없이 몇 마디 건넬 뿐인데, 그 성도는 필요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p. 73)

목사로서 여러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의무만 다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p. 74)

그리스도인이 외적인 기교와 인위적인 방법을 감상적으로 의지할 때 젊은이들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p. 79)

3장 영원성과 현재성

“왜 말씀 사역이 생기를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말씀 전체를 가르친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오늘날의 색채로 빛나게 사시도록 하지 않고 다른 시대의 필요에 따른 안목과 생각과 관점으로만 가르친다면, 우리가 하는 가르침과 설교는 별 유익이 없는 진부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은 죽이는 문자로 드러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합니다. (p. 108)

본 장은 설교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종종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해버리는 목사들이 있다.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 어디 한 번 은혜가 임하는지 봅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말씀을 전했다으니, 은혜를 받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이보다 더 해로운 직무유기다. 무책임한 성도가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목사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사의 의무는 '설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설교' 즉, '영적 설교'다.³

의문(grammtoj)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통해 용해되어 사람들의 마음으로 뜨겁게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진리처럼 들려도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p. 100)

'살아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목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기서도 중심을 파고드는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인다. '살아 있는 말씀' 선포를 위해,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현실성"에 대한 감각이 요구된다.

이번 장에서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이라는 사실⁴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시대에 합당하는 사실입니다.

1. 전체 말씀의 영원성

³ (고후 3:6, 개역)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 **BNT 2 Corinthians 3:6** o|j kai. i`ka,nwsen h`ma/j diako,nouj kainh/j diaqh,khj(ouv gra,mmatoj avlla. pneu,matoj\ to. ga.r gra,mma avpokte,nnei(to. de. pneu/ma zw|opoiei/Å

⁴ (벧전 1:23-25, 개역) 『[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죄 용서와 칭의만을 외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복음의 서론 만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p. 86)

“당신은 어떻게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가르치십니까?” ... 여러분에게 맡겨진 회중이 성경 전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곧장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주석과 참고서들을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p. 87)

수년 동안 목회를 해온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책들 가운데 온전히 살펴 보고 연구한 책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 (p. 88)

설교를 죽이는 의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무리는 소위 '복음'을 강조하는 자들이라는 지적이다.⁵ 저자의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붙들려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으로 불타 오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들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들만 반복적으로 듣기 원하는 회중과 다를 바가 없다.

목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2. 전체 말씀의 현재성

설교의 적용은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여기 복잡한 '현실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목사들이 효과적인 설교의 적용을 위해서 과감히 '현실성'을 생략해 버린다. 이러한 목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지나가버린 신앙의 결과'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베끼기만 하는 화공처럼, 현재적인 설교를 잃어버린 목사들은 교회가 과거에 이룩해놓은 영광에만 기웃거린다.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다. 목사는 나무의 뿌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 열매만 즐기려 해서는 안 된다.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다.

칼빈이 경악하며 질색할만한 칼빈주의자가 적지 않다. 청교도를 존경한다지만 정작 청교도 정신이 무엇인지도 종잡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부지기수다.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미아와 같은 목사들이 널려 있다. 현실을 잃어버린 설교는 허공을 맴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경

⁵ 실상 이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몇몇 성경 구절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맹점은 과거의 은혜로운 자기 경험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주하는 사람처럼, 이들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기껏해야 회중의 겉모습을 꾸며 그들로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방식이 아닌 우리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설교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 우리가 선포하고 알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독교 신학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가르치고 말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던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적용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p. 91)

① 지금은 16세기가 아니다. 즉, 우리의 목표가 칼빈의 도시 정부나 루터의 국가 교회 건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의 사명은 국가 조직이나 특정 정치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13:1-7과 베드로전서 2:12-14 등을 근거로 정치에 기웃거리는 교인들과 선뜻 어울리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을 정당화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를 기독교화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참된 사역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p. 92)

국가를 대적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듯이, 교회가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 시민 권을 가지고 국가를 지지하지도 적대하지도 않는 독립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p. 93)

지구 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견뎌 내지 못할 조건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p. 94)

신약 성경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헌장을 이끌어 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한 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를 용인한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교회와 세상에서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을 사회로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p. 96)

② 17세기도 아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예배 분위기나 그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용어들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 심지어 그들의 경험했던 회개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흉내 내서는 안 된다.

17세기를 풍미했던 철저한 회개의 정신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음울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부흥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우울하게 진리를 읊조리는 모습은 정말 봐 주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p. 100)

이런 인위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행동을 제발 집어 치우십시오! ...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삶이나 설교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p. 102)

③ 18세기도 아니다. 모든 교회가 300년 전의 웨슬리의 가르침에 그 당시와 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지도를 따라 현대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④ 19세기도 아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안식일에 대한 존중이든 무디와 생키의 부흥이든 이것은 모두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서 이루었던 신앙의 열매들이다.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이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역사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서 민첩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p. 104)

④ 20세기도 아니다. 저자의 눈에 비친 20세기는 가식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시대다.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정작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강력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삶을 피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진리가 성령을 통해 그 강력한 보고를 열어 보일 사람을 항상 기다리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추려낸 몇 가지 구절만을 예배 마다 주문처럼 읊조리고 있습니다. (p. 107)

4장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는 올 한 해 동안 새 신자 100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18일 밝혔다. ... 손현보 목사는 "일부러 '천사'의 1004명에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다.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이 같은 성장의 비결로 성도들의 헌신을 꼽았다.

"새 신자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월세방도 잡아주고,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이들이 고향 간다고 하면 항공권도 마련해 줍니다." 손 목사는 "그러다 보니 새 신자가 정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고 말했다. (후략)

-국민일보 2014. 12월 19일

⁶ 두 번의 세계대전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교회는 이러한 질문에 재빨리 응답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 건축, 제자 훈련, 다양한 전도 및 신앙 프로그램 등을 통한)성도들은 '헌신'과 '봉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바랬던 것이 아닐까?

목회의 현실은 목사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결과물'에 집착하게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신앙의 화려한 겉모습만을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자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앞 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자인 우리가 이 부분에 주의하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p. 111)

1. 신앙의 열매에만 집착할 때 나타나는 현상

① **말씀의 편중된 강조** : 모든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이든 오순절주의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구세군이든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기준'에 평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기준의 교집합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듯 하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기왕이면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역이 최선 아닐까?"

우리는 인간의 어떤 저작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진리를 균형 있게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p. 113)

복음주의자들은 '담고 있다'는 말을 자유주의자들이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을 왜곡하는 식으로 오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로 별 차이가 없다.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 116)

마치 위나라의 조조가 그의 천자에게 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의 본문을 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

② **전도에 대한 압박** : 만약 설교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역하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에 대한 문제가 그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는다.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다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지만, 정작 그들을 치료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도하는 일에만 분주하고, 성경은 그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제시하는 복음서의 구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의 질이 퇴보한 것은 수 세대에 걸쳐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거대한 유아방으로 전락해 왔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아이들로 가득한 거대한 유아방 말입니다. (p. 114)

2. 본질적인 목회 사역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

좋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목사가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풍성하게 소출할 수 있다. 교회의 외부적인 모습에 열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의 본질이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계산착오다.

① 성장하는 성도

목회의 열매는 건물이나 장황한 위원회의 조직도가 아니라, 목사의 말씀을 듣는 성도다.⁷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회심자를 얻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길러 내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길러 내는 것은 온전하고 능력있는 말씀입니다. ... 말씀으로 마음이 한껏 일깨워진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p. 120-121)

② 세상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

건실한 교회는 이 세상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을 매일 파송하는 영적 모판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목사인 우리가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사람들을 길러 내야 합니다. ... 정작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벌이느라 분주한 것입니다 ... 우리 목사들 가운데 한 명은 전국지에 해당하는 한 신문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신문사의 편집자가 매 주일 그가 선포하는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p. 125-127)

③ 세계가 나의 교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피땀으로 설교한다면 곧 그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회중을 통해서도 사실상 전 세계로 그리스

⁷ (고후 3:1-2, 개역)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도인 증거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 나는 집과 교회에서 말씀 사역과 기도와 글을 쓰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눈을 들어 저 땅 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일로 부름 받은 우리를 위한 치료약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이 부름받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만큼 생명력있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입니다. (p. 130-131)

교회 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빈역한 말씀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p. 132)

3. 권면 :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

그렇다면 왜 많은 목사들이 이 본질적인 사역을 뒤로 한 채, 다양한 업무와 피곤한 일상에 지쳐 가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① 소명

핵심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런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신 교수님 한 분은 곧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 말고 조금이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마라." (p. 134)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목회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 그들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내 때문에 목회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나 부인 모두 문제가 없기는 한데, 부인이 목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가장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하는 말마따나 순전히 '겁쟁이'입니다. (p. 135)

자극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르심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공동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p. 137)

② 자리 지키기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자신의 임지가 있는데 새로운 회중, 새로운 임지를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럴듯한 핑계들-배우자의 필요, 자녀 교육적인 필요, 직분자나 교인과의 어려운 관계 등-을 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새로운 회중을 찾아가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p. 138)

③ 생명을 위한 죽음

성실하게 목사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⁸ 자신이 항상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마귀는 물론 세상과 교회의 반발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뇌입니다. (p. 140)

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죽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고난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처와 열매,, 죽음과 생명, 슬픔과 기쁨, 퇴비와 기름진 정원이 함께 가는 것처럼 이 둘을 항상 함께 갑니다. (p. 141)

④ 회중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

사역초기부터 여러분이 생동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회중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분명히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p. 142)

목사 자신과 그의 아내 말고는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지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폐하거나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 머뭇거리고 불안해 하는 나를 기도로 이 자리에 있기 하고 하늘의 복락에 대한 흥분과 두려움으로 전율하며 전장의 최전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팔순 정도의 연세 지긋한 여인이었습니다. (p. 142)

5장 외출타기

본 장은 몇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목사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시도는 본서의 마지막 장으로 적합하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목회 사역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매뉴얼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제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p. 145)

1. 외출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참된 목사는 '외출'위를 걸어가는 서커스 단원과 같다. 오직 균형을 잘 잡고 앞으로 향해서 건너편까지 도달해야 하는 공연자처럼, 목사에게는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치우질 자유가 없다. 어느 편으로 떨어지든지 상관 없이, 오직 떨어지는가 떨

⁸ (고후 4:12, 개역)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만이 중요하다.

① 균형잡기

그러므로 목사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목사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그 시대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칼 바르트와 헬무트 틸리케의 말처럼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한다.

성령의 외줄이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구원하시려 하는 죄인들 간에 교통communication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끈을 말합니다. 그 끈을 타는 말씀 사역자가 항상 처하는 위험은, 한쪽이 오랜 과거에 끔찍하게 곤두박질치거나 다른 한쪽도 똑같이 끔찍하게 현실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p. 146)

a.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를 분별할 것

자신의 시대를 주의해서 관찰할 때, 목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는 시대의 일관성이다. 옷을 갈아 입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세월은 변해도 시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목사의 선포 역시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오늘날 극작가나 소설가나 평론가들과 같이 이른바 지성인이라고 불리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모욕적이고 빈정대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지 못할 것입니다. ... 오늘날과 양상을 다르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들을 비밀비재했습니다. (p.150)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목사는 이 근본적인 세상의 문제를 은근슬쩍 덮어두거나 못 본척해서는 안 된다. 힐끔거리서도 안 된다. 목사는 이 시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노아와 사무엘과 예레미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은) 치명적인 암덩어리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도덕주의적이고 사회학적인 방법을 찾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뿔속 깊이까지 퍼진 문둥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향내 나는 연구를 발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당대에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배웠습니다. (p. 150)

b. 성경의 사람이 될 것

세상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건너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세상은 목사가 무엇을 위해 보냄 받았는지를, 성경은 목사가 어디에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아는 한 목사는 목회라는 거룩한 사역에서 오는 부담과 짐을 덜겠다고 반전과 음모가 난무하고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나는 복잡한 소설들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지금 행하시는 일들만큼 흥미진진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환상적인 일을 어느 작가의 소설에서 만나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소설보다 더 기이한 것이 진리입니다. ... 우리가 사는 미친 세상에서 사리에 꼭 들어맞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p. 153)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로 가득 찬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악함에 주눅이 들어 쉽게 겁을 잡아 먹고, 일이 조금 잘못되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허둥댁니다. (p. 154)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② 집중하기 -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외출 위에 오른 사람은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안 된다. 귀가를 스치는 바람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우리는 목사이자, 목수이자, 어부이자, 농부이자, 정치가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목사'여야만 한다. 그리고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강단을 지켜야 한다.

목사인 여러분이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p. 154)

그러므로 1990년대든 1890년대든 1590년대든 시대는 다르고 각각의 시대에 따라 당대에 맞는 고유한 적용점이 있고 견지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만은 동일합니다. 목사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갖는 시대적 의미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말씀 전체를 설교하고 끊임없이 적용할 것입니다.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마음을 딴 데 두는 일이 없이, 어떤 방해에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p.158)

③ 시선을 고정하기 - 영광스러운 조망

목사가 그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 뿐이다. 우리는 순수함을 가장한 어리석음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외모'를 요구하시지 않으셨다. 그 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에서 멀리 떨어진 일에 낙심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이다.

(선지자들은) 임박한 심판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았다기보다는 사그러질 수 없는 소망의 위대한 빛 가운데 심판을 맞이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그들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안녕에 기반을 두지 않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터로 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반석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맥없이 가라앉는 모래와 같습니다. (p. 159)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일로부터 벗어나 결길로 가게 만드는 미혹거리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종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p. 160)

2. 죽음으로 생명을 증거하기

① 은혜를 기억하기

저자는 이제 자신이 사용했던 비유를 넘어선다. 목사가 올라서 있는 영적인 외줄은 이 세상의 공 연장의 외줄과 다르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줄타기에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 이라도 부단한 훈련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외줄 위에 올라서서 균 형을 잃지 않고 그 끝자락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은혜의 기적이다. 우리는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 외줄 위에 올라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역은 자기 자랑의 기초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다.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능가하도록 하였고, 우리로 타락한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 이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p. 161)

② 자기 부인의 연습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불타오르게 한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한다.

조지 4세가 사상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성탄 연설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방송 담당 자들은 버킹검 궁의 중요한 케이블 한 가닥이 끈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정 된 방송 시간 전에 그것을 고칠 여유가 없었고, 결국 한 직원이 방송 내내 끊어진 전선을 직접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 내가 심장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뇌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자신에 대해 살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맡 은 자가 죽어야 합니다. (p. 168)

a. 그리스도를 알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단지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등불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영광으로 타오르는 태양입니까? 하루가 셋별로 시작해서 정오의 태양같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분이 우리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p. 165)

b. 소명을 확인하라!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런 확신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사역에 들어서기 전에 이 지식을 위해 기꺼이 죽기를 다짐할 정도로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p. 164)

c. 인내하라!

지옥이 나를 향해 쫓아와도 내가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지 전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p. 165)

d. 자신을 죽이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 그것은 너무나 어려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말씀을 맡은 자는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p. 165)

e.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오늘날 교회와 상관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협회와 선교 단체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구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특정한 교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말씀과, 오늘날 기독교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생명력 있는 증거를 토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p. 173)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교회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p. 173)

결론. 참된 설교, 참된 목사, 그리고 참된 교회

본서는 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우리에게 참된 목사가 될 것을 호소한다. 비록 척박하고 막막한 빈 들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힘있게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본서의 원제목은 'The Work of the Pastor'다. Works가 아니라, Work라는 표현도 주의할 만하다. 목사의 길은 한 길이며, 그 직무는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설교의 흥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라는 말이 요청되는 것처럼, 지금은 “참된 설교”과 “참된 설교”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때다. ‘참된 목사’는 ‘참된 설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설교’에 대해서 논한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각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장 :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2장 : 겸손하게 설교하라!

3장 : 살아 있는 그리고 살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

4장 :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하라!

5장 : 죽음으로 생명을 증거하라!

참된 목사란 참된 목사에 대한 바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이 과업을 ‘매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참된 목사의 길을 걸어야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이 길 바깥에서 단순히 참된 목사의 염원을 가지고 다른 동역자들을 관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외롭고 고되더라도 지금 이 길 위에 올라서 걷고 있는 자인가?”